

지역 소식통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부안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과 증강을 위해 고마제 등 9개소 저수지에 내수면 수산종자 66만 6000마리(붕어 20만 4000마리, 동자게 9만 마리, 메기 15만 마리, 미꾸라지 22만 2000마리)를 방류했다.

이에 따라 군은 어업자들의 증강을 위해 자원회복이 필요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방류된 수산종자는 전염병검사를 통과한 우수 종자들로 지난달 말 1차 방류에 이어 2차 방류이며 관계공무원과 방류지역 내수면어업계장 및 마을이장 등이 참석해 수산자원 회복과 증강을 위한 불법조업 감시체계 확립도 협의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 해수욕장 이용제한

전북 고창군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8호 태풍 비바(BIBI) 북상에 따른 비상조치로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26일 고창군은 태풍 북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구시포·동호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정리(철거)를 완료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샤워장 역시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 앞서 고창군 해수욕장은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전역에 모두 18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고, 출입구별로 발열체크 인력과 소독전담요원 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쳤다. 안전관리센터 내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방역관리를 총괄하고, 시간마다 마스크 착용 계도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송을 진행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즐기는 편안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코로나19 유입차단 올인”

권익현 부안군수, 자원·역량 총동원 선제적 방역 주문
폭염·태풍 대비, 온열질환 예방 안내·안전점검 강화

권익현 부안군수가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최근 열린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안전안내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느슨해진 경각심을 다잡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입시휴관에 들어간 공공시설 홍보에 철저를 기해 군민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군수는 또 “긴 장마 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폭염대비 철저를 기하고 무더운 오후시간대에는 무리

한 농사일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태풍 북상에 대비해 공사현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 및 업무공유를 통해 같은 지역이나 공간에서 사업추진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달라”며 “자신의 일이 아니면 무관심한 사고방식은 버리고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순항’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정읍시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생활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용·배수

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역 농민의 경작 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329억원을 들여 재해 우려가 있는 용·배수로와 취입보 등 수리 시설을 정비하고, 낮은 농로를 보수해 영농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단풍마린 쌀 생산단지 내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영농여건 개선과 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배수로 55.0km에 113억원, 농로 89.0km에 104억원, 단풍마린 쌀 생산단지 32km에 78억원, 기계화 경작로 25.0km에 36억원을 투입해 재해 예방,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읍 쌀 브랜드 가치 향상과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총 403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풍마린 쌀 생산단지 정비를 추진 중이다.

2020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사업은 지난 2월에 착수해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농업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촌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생활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 비 가공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쌀 생산양장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1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에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정희)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비 등 총사업비 13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은 비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과 비 건조·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2020년 공모사업에 한결RPC가 선정된 데 이어 2021년에는 고창농협통합RPC가 선정되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고창농협통합RPC는 고창군에서 총 생산되는 비의 약 50%인 3만7930톤(2019년 기준)을 수매해 가공하고 있

다. 내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장RPC와 흥덕RPC의 노후리인을 개보수하고, 무장RPC를 친환경·단일미 생산 전문공장으로 바꿔 고창군 명품 브랜드 쌀 생산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고창군 대표브랜드 ‘높을고창’의 대표품종 중 하나로 청정한 고창 쌀을 선정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귀농 청년 농부 김민진·임세환 부부가 26일 지역 내 장애인과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재배·생산한 농산물을 전달했다.

정읍 귀농인 김민진·임세환씨 부부, 나눔 실천

직접 재배한 첫 수확물 기증

정읍시 귀농 청년 농부 김민진·임세환 부부가 26일 지역 내 장애인과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재배·생산한 농산물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지난 5월 동양물산기업(주) 주관의 귀농 청년 농부 트랙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 씨 부부가 기증받은 트랙터를 활용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씨 부부는 무상 지원받은 트랙터를 활용해 처음으로 수확한 아로니아 열매(100kg)와 여름 두릅(50kg) 등 15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역 내 복지시설기관인 나눔빌과 은혜의 집 등에 기증했다.

김민진(여, 28세) 씨는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저희 부부의 작은 정성이 어

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사람에게 맛있고 건강한 행복을 전하는 정읍의 농부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해준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정읍농촌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는 귀농 청년 농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씨 부부는 지난 2019년에 전남 여수에서 정읍시 소성면으로 귀농했다. 현재 각종 SNS계정(카카오톡 채널·구독자 2만명, 블로그·1일 구독자 6천명,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카페 등)을 활발하게 운영 관리하면서 많은 소비자들과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열정 넘치는 청년 농부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 본격

취약계층 무료 세탁·건조지원

정읍시와 (사)참좋은사람들사랑나눔공동체(대표 유영준)가 26일부터 칠보면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을 본격 운영한다.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 사업은 이동 세탁 차량을 이용해 빨래가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과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움직임이 불편한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희망자 수요조사 후 매주 수·금요일 읍면동을 순회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봉사자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빨래를 직접 수거해 세탁한 후 가정으로 배송하는 빨래 서비스를 진행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가

구를 방문해 그동안 미뤘었던 목은 이불과 직접 하기 어려운 빨래를 깨끗하게 세탁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역 내 소외계층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빨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잦은 안부 연락과 함께 정서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날 빨래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그동안 몸이 불편해 이불 빨래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깨끗이 빨아 밀려 주기까지 해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진섭 시장은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 서비스가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